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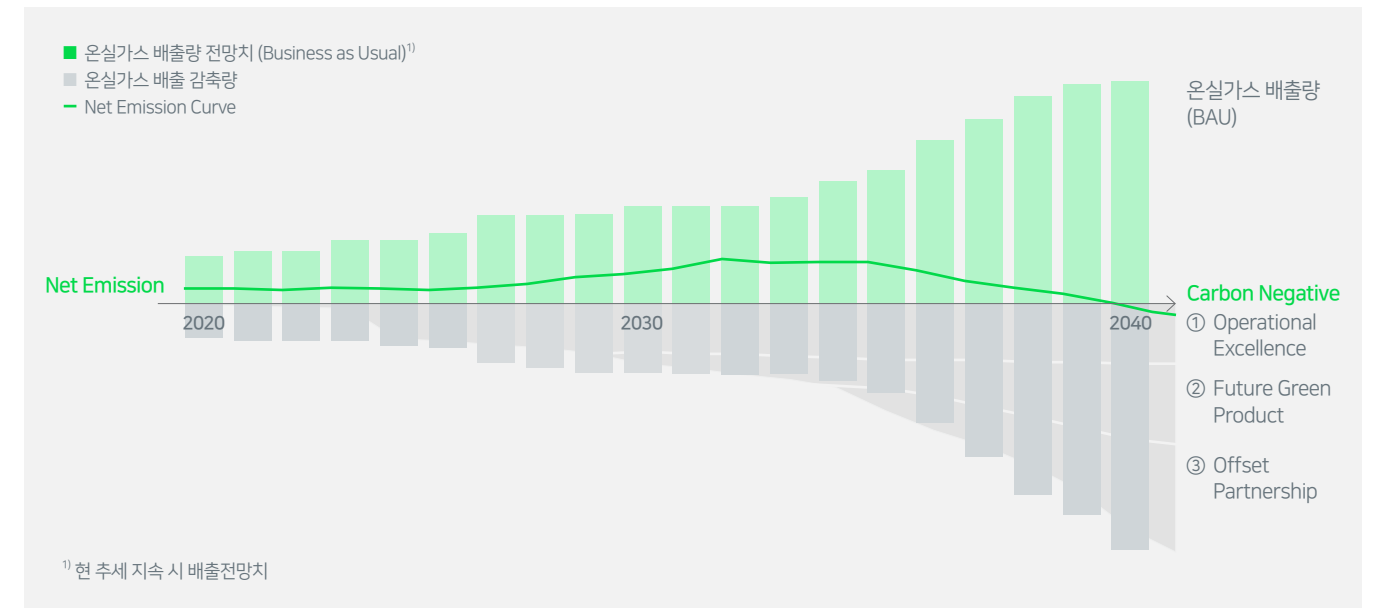
2020 NAVER TCFD보고서

CONTENTS

- 03 네이버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
- 05 거버넌스
- 06 전략
- 10 리스크 관리
- 11 관리 지표 및 목표

네이버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

네이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2 데이터센터 건설, 언택트/5G 시대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후변화 완화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센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비즈니스 운영비용을 다양한 형태로 증가시키고,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속가능한 사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운영상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친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목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친환경 효과는 극대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최소화하여 '2040 Carbon Negative'를 달성하는 전략을 선언하였습니다.



Carbon Negative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하여 상쇄(offset)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 이하로 만드는 전략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관련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①운영상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②제품/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며, ③외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파트너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버넌스



네이버는 내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시설 환경영향을 줄이고, 외부적으로는 친환경 커머스 영역의 주요 플레이어(player)에 대한 기술투자 및 M&A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관련 다양한 사업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활발하게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기후행동 이행 현황과 계획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검토될 예정이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네이버는 더욱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을 이끌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네이버는 2020년 10월 이사회 의결로 CEO와 외부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립 하였습니다. 2020년 ESG위원회에서는 네이버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방향성 수립과 2040 Carbon Negative 목표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ESG위원회에서는 매 분기 네이버의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향 검토 및 주요 과제 승인, 실행 관리와 감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네이버 내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집행, 자본조달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최고경영자)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친환경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커머스 영역 내 친환경 관련 사업 아이템 발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40 Carbon Negative 목표 선언 이후 네이버 경영진의 핵심 관심사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네이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성원 전반에게 주시시키고 전사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2020년 하반기에는 사육과 데이터센터 운영을 관장하는 전사 환경 관련 리더, 그리고 친환경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상하는 커머스 리더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고,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여 관련 아이템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략

A/B. 단·중·장기에 걸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가 네이버 비즈니스,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네이버는 서치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ICT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로 발생가능한 리스크와 기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종류

전환 리스크 (Transition Risks)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규제/기술/시장 변화와 평판 영향
물리적 리스크 (Physical Risks)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 기상이변 심화가 초래하는 비즈니스 기반 시설 측면의 급성·만성적 리스크

단기/중·장기 리스크와 기회의 재무 영향

		손익 영향	재무상태 영향
전환 리스크 (Transition Risks)	단기	a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및 배출량 지속 증가 시 배출권 구매비용 증가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증가 시 온실가스 배출부채 증가
		b 저탄소 설비 및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	저탄소 설비 및 인프라 확충
	중·장기	c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영업수익 증감	d ESG 투자자산군 편입 시 자본 조달비용 절감, 신규 투자 유치
		e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의 증감	f 친환경 비즈니스 리더십 확보 시 브랜드 가치, 영업권 등 무형자산 증가
물리적 리스크 (Physical Risks)	단기	-	-
	중·장기	g 자산 손상으로 인한 보상·복구비용 지출	데이터센터 등의 자산 손상
		h 기온 상승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증가	
	i 공급망 및 물류체인 타격으로 인한 커머스 영업수익 감소		

a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또는 배출량 지속 증가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온실가스배출부채 증가

네이버는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 허용량 대비 초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9년부터 재무제표 내 온실가스배출부채를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온실가스 배출부채금액은 약 9억 7천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연간 연결 영업수익 대비 약 0.015% 미만 수준이나, 향후 관련 재무 영향의 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세종 데이터센터 각 세종(제 2 IDC)은 각 춘천 대비 6배 이상 규모로, 약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하이퍼스케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일반 사무용건물 대비 탄소배출량이 높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출권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매년 전력사용량 감축이 요구되는 데에 반해, 5G와 비대면사회의 도래는 향후 네이버의 데이터처리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탄소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가 향후 탄소배출량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지속 상승할 시 부족분에 대한 구매비용과 온실가스배출부채가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향후 배출량 증가 추이에 대한 예상을 기반으로 제 2 IDC 준공에 따른 배출권 미확보 시, 배출권 구매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2030년까지 누적 약 1.3조 원에 이를 수 있음을 도출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재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외부 감축사업 참여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 저탄소설비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과 관련 자산 증가

저탄소, 저전력 인프라에 대한 규제와 관련 인증이 확대되고, 사업장 운영의 환경영향 최소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설비에 대한 다양한 투자 지출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는 사업장 운영 상에서 친환경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효율지수(PUE)를 갖춘 데이터센터와 LEED Platinum 등급의 친환경 사옥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각은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며, 관련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데이터센터 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19년, 연간 217MWh의 전력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97톤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외에도 신규 건립중인 제 2사옥, 제 2 IDC에 대한 녹색구매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준공 예정인 제 2사옥 '1784'는 부지 특성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할 면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최대한 활용하여 763.2kW의 지열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지붕에는 140.8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㉔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영업수익 증감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생태적, 물리적 타격이 심화되면서 밀레니얼, Z세대를 중심으로 구매의사결정 기준에서 지속가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걸쳐 환경부하가 최소화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선호하고, 이러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브랜드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2020년 6월 말 기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커머스 사업부 내 스마트스토어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친환경상품군을 확대하고자 하며, 친환경 풀필먼트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통운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 역시 커머스 산업의 주요 환경 리스크로 인식하고 포장재 감축, 친환경 소재로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㉕ ESG 투자자산군 편입 시 자본조달비용 절감, 신규 투자 유치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사결정에서 해당 기업의 ESG 리스크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며, 이미 부정적 환경영향 발생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ESG 관리 역량이 입증된 기업들에 대한 ESG 투자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020년 10월 기준 MSCI ESG Rating A 등급을 획득하고 있으며, MSCI Korea ESG Leaders Index 내 국내 상장주식 중 가장 높은 구성비(1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ESG Risk 관리 역량 강화로 글로벌 ESG 리더로 도약하여, ESG 투자자에게 더 많은 노출의 기회를 확보할 것입니다.

㉖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의 증감

데이터센터는 전력소모가 큰 시설로, 향후 전력소비 효율화와 함께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네이버는 2040년 Carbon Negative 달성을 위한 주요 방향성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이 한계가 있는 국내 여건상, RE100³⁾ 이행 지원 제도 중 녹색프리미엄제나 REC⁴⁾ 제도 등을 통해 외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을 구매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은 향후 네이버의 운영비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국내 RE100 이행 지원 제도에서 제시하는 여러 옵션에 대해 경제적, 환경적 측면으로 적용가능성을 분석 중에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의 투자안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㉗ 친환경 비즈니스 리더십 확보 시 브랜드 가치, 영업권 등 무형자산 증가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친환경 비즈니스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업은 시장점유율 증대를 통한 단기 영업수익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평판 향상을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 및 영업권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³⁾ RE100: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비영리 민간연합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니셔티브로, RE100 가입 기관은 2050년 이내로 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대외 선언

⁴⁾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㉘ 자산 손상과 이로 인한 보상·복구비용 지출

데이터센터는 네이버 비즈니스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영업의존도가 높고 내용연수가 길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시 초래될 경제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은 기상이변 상황에서의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도 6.5 이상 지진, 홍수, 태풍, 화재 등에 대한 방재역량을 갖추어 설계되었으며, 비상 시 외부로부터 전력 공급이 단절되더라도 센터 내 최대 72시간까지 발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㉙ 기온 상승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운영비용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데이터센터의 냉각에 소요되는 전력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연간 운영비용의 75% 이상이 에너지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고, 이 중 60% 이상을 냉각 설비 및 수·배전이 차지하고 있어 냉각시스템 효율성과 외부 기온 영향의 최소화는 운영비용 측면에서 비중있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은 친환경적으로 서버의 열을 내리기 위해 스노우 멜팅(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한 동절기 도로 열선), 외부 공기를 통한 자연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냉각에 소요되는 전력량을 최소화하여, 1년 중 냉방기를 사용하는 날은 1년 중 약 30일에 불과합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PUE⁵⁾(전력효율지수,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량을 IT장비가 소비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성이 높음)는 1.08로, 이는 전체 전력 중 냉각에 8%만을 사용하고 92%를 IT 자원에 씬으로써 냉각에 필요한 전력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평균 PUE인 2.66,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그린데이터센터 PUE의 기준인 1.7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㉚ 공급망 및 물류체인 타격으로 인한 커머스 영업수익 감소

네이버 사업 내 커머스가 차지하는 영업수익 비중은 2020년 6월 말 기준 약 20%에 육박하고, 비대면 사회 도래로 인한 온라인 쇼핑 수요 및 판매자 지속 증가에 따라 커머스 매출 규모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홍수, 화재 등 기상이변 심화는 공급망과 물류체인에 물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지연·중단은 고객 유치 및 유지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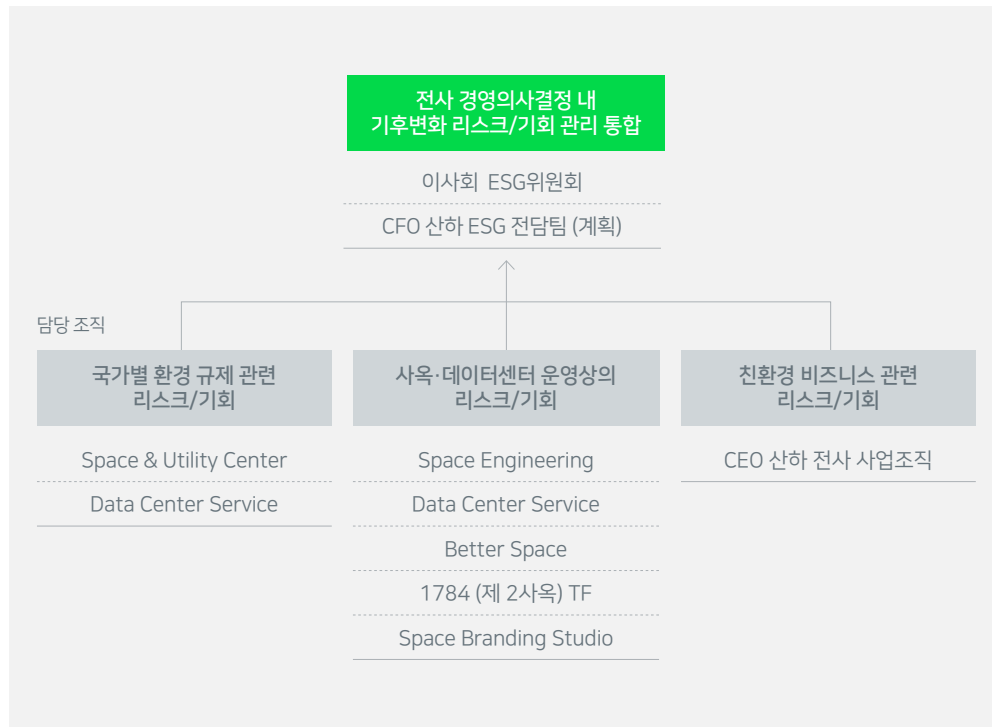
C.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 시 네이버 비즈니스의 회복탄력성

네이버는 향후 10년간 예상 탄소배출량을 기반으로 IPCC가 제시하는 1.5°C 이하, 1.5°C ~ 2°C 시나리오 시 탄소가격과, 국내 2017년~2019년 탄소배출권 평균 거래가격, 분석 시점인 2020년 8월 기준 국내 배출권 최고 거래가를 고려하여 미래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의 범위를 예상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재무 영향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수반되는 재무 리스크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네이버는 이러한 규제 대응 측면의 재무 리스크에서 나아가,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유무형 자산에 미치는 재무영향의 분석을 고도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목표 달성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⁵⁾ Power Usage Effectiveness

리스크 관리

A/B/C. 네이버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 평가하고 전사 재무/비재무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에 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



유형자산으로서의 네이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부 사옥 및 데이터센터 관리 조직체계가 운영상의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고, 친환경 시설 건축 및 운영을 위한 녹색구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전반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CFO 산하의 전사 ESG 관리 인력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검토, 식별하며 단기, 중·장기 대응 방향성을 수립합니다. CFO는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지출이나 자원 확보를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주요 비재무 리스크 관리 방향성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CEO 산하 리스크 관리 전담 지원조직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 지표 및 목표

A/B.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관리를 위해 네이버가 관리하는 지표

네이버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센터 전력효율지수(PUE)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탄소배출량

(단위: tCO₂e)

구분		2017	2018	2019	2020. 1H	
합계		57,080	72,416	78,712	38,710	
온실가스 총 배출량	그린팩토리	7,541	7,510	7,178	3,143	
	데이터센터 각	49,539	64,906	71,534	35,567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그린팩토리	276	295	244	62
		데이터센터 각	141	48	51	11
	Scope 2	그린팩토리	7,265	7,215	6,934	3,081
		데이터센터 각	49,398	64,858	71,483	35,556

(2) 에너지사용량

(단위: TJ)

구분		2017	2018	2019	2020. 1H
총 에너지 사용량	합계	1,178	1,495	1,624	799
	그린팩토리	159	159	152	67
	데이터센터 각	1,019	1,336	1,472	732
직접 에너지 사용량	합계	7.4	6.7	5.7	1.4
	LNG	5.3	5.8	4.8	1.2
경유	그린팩토리	0.0	0.04	0.01	0.01
	이동연소	0.1	0.1	0.1	0.0
경유	데이터센터 각	1.6	0.4	0.4	0.0
	LNG	0.5	0.3	0.4	0.1
간접 에너지 사용량	합계	1,171	1,488	1,618	798
	전력	144.3	143.0	138.0	60.5
	그린팩토리	9.6	10.0	8.8	5.0
전력	데이터센터 각	1,017	1,335	1,471	732

네이버의 탄소배출량은 2017년 말 대비 2019년 말 기준 약 37.8% 증가하였습니다. 사옥 그린팩토리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지속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국내 배출권가격은 2017년 1월 2일 기준 1톤 당 약 7,800원에서 2020년 10월 말 기준 약 24,000원으로 3배 이상 상승하여 배출량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배출권거래제 제 3기 계획기간 도입에 따라 네이버 내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상 사업장이 확대될 예정으로, 네이버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관련 재무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을 결정하였습니다.

C.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관리를 위해 네이버가 관리하는 목표 및 관련 성과

네이버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양을 감축하는 Carbon Negative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Scope 1, 2, 3 포함). 네이버의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소모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 재생에너지 구매가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ROI(Return on Investment) 관점에서 효율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목표 달성 관련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 2020년 하반기 현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제도적, 인프라적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 감축/상쇄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네이버의 기후변화 목표 대비 감축량과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기후변화 리스크, 기회 관리 성과 - 운영상의 환경영향 저감 추이 (단위:MWh)

구분	2017	2018	2019	2020. 1H	
총 에너지 사용량 절감	합계	28,896	37,202	41,588	21,723
사옥관리를 통한 절감	그린팩토리	-	138	517	-
	데이터센터 각	426	511	511	255
자연공조냉방기 도입을 통한 절감	데이터센터 각	28,435	36,371	40,343	21,333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통한 절감	데이터센터 각	35	182	217	135
재생에너지 발전량	합계	136	283	318	152
지열	그린팩토리	101	101	101	17
태양광	데이터센터 각	35	182	217	135
데이터센터 전력효율지수 (PUE)	합계	1.11	1.11	1.09	1.08

네이버는 2017년 말 대비 2019년 말 에너지 사용량 절감 규모가 44%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동기간동안 약 2.1배 증가하였고, 데이터센터 전력효율지수 역시 지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는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축했으며,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매년 5%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내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22곳을 설치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부담을 줄였으며 세계자연기금이 주최하는 환경운동 캠페인 'Earth Hour'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각은 2018년 태양광 발전설비의 획기적 개선으로 2019년 연간 217MWh의 전력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97톤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냉방에 사용되는 물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2019년에는 IT 자원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 12.53% 감소했습니다. 2021년 준공 예정인 제 2사옥 '1784'는 LEED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부지 지하를 활용한 763.2kW 규모의 지열시스템, 지붕을 활용한 140.8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설이 진행 중인 2020년 10월 말 기준, 제 2 사옥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160.7kWh/m²로,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통계 기준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업무시설 중에는 최고 수준인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기록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에서 1+등급을 취득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도 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NAVER